

즉시 배포용: 2016년 3월 24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OUNTY 카운티 소재 BOWMAN AVENUE DAM과 관련하여 LORETTA LYNCH 미법무장관과 FBI 반장 JAMES COMEY 가 발표한 사이버 공격-혐의에 대한 ANDREW M. CUOMO 주지사의 성명

"2013 년 Westchester 카운티 소재 Bowman Avenue Dam을 겨냥한 사건을 포함, 이란 정부를 대신하여 사이버 해킹을 저지른 혐의로 7명의 이란인들을 상대로 한 연방정부의 기소는 심각한 사안으로, 사이버 위협과의 투쟁하는 국가들이 안고 있는 도전과제를 시사합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성공적으로 조사를 마치고 책임을 규명한 미국 법무부에 박수를 보냅니다."

"미국 내 사이버 공격 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뉴욕주는 이러한 위협에 아직 대안이 없습니다. 주정부는 사이버 보안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뉴욕주에 있는 우리의 중요한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우리의 뉴욕주 국토안보전략에 명시된 것처럼, 이러한 조치로는 노후된 인프라 업그레이드를 통해 네트워킹 인프라를 강화하고, 주 당국에서 보안을 제고하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연방 및 지역 단계에서 새로운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당국은 지속적으로 사이버 보안 기능을 감시 및 평가하는 동시에 적극적인 태도로 모든 뉴욕 시민의 안전과 보안을 담당하는 사이버 보안 프로그램을 계속 지원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의 지도에 따라 뉴욕주는 다음을 포함한 사이버 보안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여러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 뉴욕주 재경부에서 규제하는 금융 기관들을 대상으로 사이버 보안 대책 평가 실시.
- 뉴욕주와 연방정부 간의 협업을 대폭 발전시켰던 뉴욕주 인텔리전스 센터와 MS-ISAC(Multi-State Information-Sharing and Analysis Center)를 2013년 10월 같은 장소에 배치.
-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이버 보안 전문가로 구성된 <u>사이버 보안 자문위원회</u> 결성. 위원회는 주정부가 뉴욕주를 더 나은 방식으로 보호할 수 있게 해준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권고를 제시했습니다. 위원회는 오는 **4**월 중 다음 회의를 소집할 예정입니다.

- 차세대 보안 전문가 양성을 위해 Albany 소재 Harriman Campus에서 새로운 College of Emergency Preparedness, Homeland Security & Cybersecurity 발표.
- NY IT 및 데이터 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최첨단 데이터 센터 건립.
- 사이버 위협을 감시하고 이러한 위협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수집 및 보급하기 위해 뉴욕주 경찰 소속 사이버 분석 팀 결성. 사이버 분석 팀은 전문적으로 훈련된 정식 사이버 보안 전문가와 직원으로 구성되며 사법 집행 기관, 민간 기업 및 정부 기관에 대한 부문별 정보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u>www.governor.ny.gov</u>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u>press.office@exec.ny.gov</u> | 518.474.8418